

[보도자료]

크리테오코리아, 새해 맞아 사무실 확대 이전

[2015 년 1 월 26 일] -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를 선도하는 크리테오코리아(대표 고시나, <http://www.criteo.com/kr/>)가 한국 지사 사무실을 확대 이전했다.

크리테오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세에 발맞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, 광고주 및 퍼블리셔, 파트너사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새로이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됐다. 신규 사무실은 600m² 규모로 50 명 이상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, 최신 트렌드에 맞춰 확 트인 사무 공간과 회의실을 갖추고 직원들이 걷거나 사이클을 타면서 일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 공간도 마련했다.



크리테오코리아 고시나 대표는 “크리테오코리아는 2010 년 처음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, 국내 고객사들이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괄목할 만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데 크게 기여해왔다”라며, “이번 사무실 이전은 크리테오코리아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. 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기반으로 앞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, 한국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크리테오의 2014 년 3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70.9% 증가한 1 억 9,440 유로를 기록한 바 있으며,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 크리테오코리아의 이전 사무실 주소는 강남대로 343 신덕빌딩 8 층이며, 대표번호는 02-585-0785 이다.

크리테오(Criteo)에 대하여

크리테오는 소비자 맞춤형 퍼포먼스 광고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, 클릭 후 매출을 기반으로 이익을 산출함으로써 ROI 의 투명성 및 측정 방식 간소화를 추구한다. 현재 미국, 유럽, 아시아 지역 등에 약 21 개의 사무실을 두고 1,000 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, 6,000 개 이상의 광고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. 또한 다수의 주요 실시간 경매 방식(RTB)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 8,000 여개의 퍼블리셔와 직접적인 협업을 하고 있다. 더 많은 정보는 www.criteo.com/kr/ 에서 확인 가능하다.



※참고자료 문의: 민커뮤니케이션

조정호 부장: 02-3495-7841 / 010-4046-1213 / jhcho@mincomm.com

이은아 사원: 02-3495-7842 / 010-3763-0293 / ealee@mincomm.com